

광주 시내버스 올해도 파업에 멈추나

11차례 임금협상 결렬... 노조, 지노위에 조정 신청

12~13일 찬반투표 거쳐 14일 파업 들어갈 수도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파업 위기를 맞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임금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5개월여에 걸쳐 모두 11차례의 노사교섭을 진행했지만 최근 무산되면서 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기간은 오는 11일까지 보름간으로, 오는 7일과 11일 두 차례 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12~13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4일경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조사에 들어갔다. 노조는 현재 통상 시급(時給)기준 9.6% 인상 요구안을 5.1%로 하향 조정했으며, 사측은 동결에서 3.3%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노사간 조정안의 차이가 크지 않아 파업 없이 타결 가능성도 있어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6월에도 임금협상 결렬로 12년 만에 버스 파업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노사 양측의 조정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시는 시외 구청에 60명 규모로 비상대책 상황실을 마련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평소의 70% 수준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상수송 노선을

확보했다. 평소에는 98개 노선에 998대 9997회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파업 시 84개 노선 698대로 줄일 계획이다. 파업기간 중 14개 전남지역 시외구청은 운행하지 않고, 파업 미참여 운전원을 적극적으로 운행 노선에 투입할 방침이다. 또 파업이 장기화하면 택시부제 해제와 전세버스 노선 운행 등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2006년부터 시내버스의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에 회사가 맡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예술고 이설 등 교육현안 논의

시교육청-지역국회의원 간담회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일 오전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어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김동철·전정배 의원 등 6명과 장위국 교육감, 황흥규 부교육감 등 25명이 참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예술고 이설지원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진로직업체험센터 신설 ▲시교육청 청사이전 등 광주 교육현안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예술고 이설지원은 아시아 문화

전당과 연계해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문제는 지자체와 국회의원, 교육청 관계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은 올 예산편성의 최대 쟁점으로 인식하고 누리과정의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와 국가부담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원들이 결의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의원이 관심을 두고 예산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청사 이전은 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의제인 만큼 부지확보 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축구장 100개 크기 국가정원. 지난 5일 순천시 풍덕동 순천만정원 잔디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낙연 전남지사, 신원섭 산림청장, 조충훈 순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정원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 지정 선포식을 갖고 있다. 순천만정원은 축구장 100개 크기의 정원 58곳에 나뉘면 511종 83만 7000그루가 식재된 국내 최초의 종합정원이다. <전남도 제공>

순천만정원,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지정 됐다

시민 등 7만명 참여 선포식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지난 5일 오후 5시 순천만정원 잔디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은 순천만정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선포했다. 황 총리,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1차관, 신원섭 산림청장, 시민 등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은 '도시에 그

린, 대한민국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오후 4시 식전행사인 군악 의장대 공연으로 막이 오르고 세계 정원도시 명소화를 위한 순천만정원 전담대 기증식이 진행됐다. 이어 순천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합공연, 가수 장사의 초청 공연으로 분위기는 고조됐다. 주제공연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그리다'는 드로잉 퍼포먼스로 순천만정원의 아름다움을 글과 그림에 담

아 표현했다. 공식행사는 순천만국가정원이 걸어진 길 영상물 상영, 산림청장으로부터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서 전달 등으로 이어졌다. 황 총리는 축사에서 "이번 국가정원 지정으로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의 발전에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정원 1호를 선언하는 선포식 퍼포먼스로 주최측은 미디어테이블 영상을 통해 짝이 나고 식물들이 자라나는 영상을 연출했다. 또 친환경을 상징하는 종이비둘기 500마리가 비상하고 흰색비둘기가 날아가는 가운데 정원 내 봉화언덕 정상에서 국가정원 1호를 상징하는 '1'이라는 조형물이 떠올랐다.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등이 대곡기를 흔들면서 '아름다운 강산'을 합창하고 식후행사로 정음음악회가 열어 국가정원 지정을 축하했다. 국가정원 선포식이 열린 이날 순천만에는 입장객이 10만5000명을 넘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천정배 의원 주도 '빛다울 포럼' 정식 출범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구 을) 의원이 주도하는 '빛다울 포럼'이 6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광주지역 각계 원로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창립선언문 낭독과 임시대회 선출을 통한 공동대표 임원직 선출, 정관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천정배 국회의원은 격려사에서 "정치가 총체적 무능에 빠졌으며 광주정치, 호남정치는 2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개혁정치 세력이 만들어져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광주시민은 이 나라의 민

주주의와 인권,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해 앞장서 온 가장 정직한 용감하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며 "광주 시민들이 먼저 나서 광주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정치를 바꿔 정의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광주가 광주다'를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진 빛다울 포럼은 이날 결성된 시민모임을 통해 향후 지역현안을 토의하고 미래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

지방 정가

주경님, 광주시 체육시설 운영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 4)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건설된 일부 경기장들이 체육시설에 '시립'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에 따라 기존 '남부대 국제수영장'은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으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으로 바뀌게 된다.

박춘수,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 박춘수(남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감염병 관리 지원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관리사업지원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예방 및 방

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정해 통행의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역업체 공동도급 49%·하도급 60% 이상 참여"

광주시, 지역 건설경기 살리기

공공·민간 주택사업 적용

광주시가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 하도급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과 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주택건설사업에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시 49%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시 60% 이상 참여토록 관련 부서와 민간 기업에 협

조를 당부하고 있다. 설계 전문 용역회사와 건축사 사무소에는 광주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업체의 품질기준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를 최대한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이 보유한 건설장비도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 기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건설공사 계약 실적(2304건, 2조9321억원)의 경우 광주시는 계약 금액으로는 특광역시 중 5위, 계약 건수로는 6위로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은 활발하지만 지역 건설경기는 침체하고 있다"며 "공동도급과 하도급에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요청,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 수술 방법: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arma Inl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드름 니버비전 인레이

※부작용:수술초기 야간 빛반점,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